

Goodyear, EPDM 가격담합 피소

미국 연방 및 주법원에 개별 · 집단소송 ... 법무부 · EC 조사도 계속

미국 Goodyear가 1994-2002년 동안 가격담합을 한 미국과 유럽의 몇몇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생산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Goodyear는 세계 최대의 타이어 생산기업으로 EPDM의 주요 글로벌 구매 · 소비자로서 EPDM 가격공모로 입은 자세한 피해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Goodyear는 2004년 5월7일부터 미국 오하이오주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했으며 제소된 기업은 Bayer, Crompton, DSM, DuPont Dow Elastomers, Polimeri Europa, Polimeri Europa America 등이다.

Crompton은 EPDM을 비롯한 일부 화학제품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미국 연방과 주 법원에 집단소송이 걸려 있으며 Bayer, Crompton, DuPont Dow 등도 미국의 다른 EPDM 구매기업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피소된 상태이다.

또 일부 EPDM 생산기업은 2002년 미국 법무부와 EC(European Commission)가 발족한 EPDM 독점금지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DuPont Dow는 최근 EPDM 독점금지 조사와 관련해 소환당했으며 조사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Crompton은 합성고무 원료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캐나다 · 유럽 · 미국 당국의 EPDM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Bayer과 DSM도 가격조작 혐의와 관련해 당국에 의해 유럽지부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7/21>